■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25-256.
http://doi.org/10.17948/kcs.2022..96.225

南圃 金萬英의 散文 연구*

정하정(鄭夏汀)**

목 차

1. 들어가며
2. 道學家의 삶과 지향
3. 산문의 제 면모
4. 나오며

국문초록

南圃 金萬英은 그간 학계에서 도학가의 모습만 조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김만영의 문학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우선 그의 산문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크게 다음 세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었다.

먼저, 김만영은 학문을 하는 학자이자 농사를 짓는 농부로 자처하였을 만큼 野夫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정체성을 표명하기 위해 자기서사라는 형식의 산문을 창작하였다. 이들 작품에서 자신이 가탁한 經鉏野夫라는 인물과 客 간의

* 본 논문은 2022년 6월 30일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정용건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 계명대 한문교육과 조교수.

가상 문답을 설정하여 세상과는 다른 자신의 삶과 지향을 일부 변론하는가 하면, 자전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陶淵明의 「五柳先生傳」과 유사한 구도와 전개로 野翁으로서의 즐거움과 莊子的 세계관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韓愈의 산문에서 모티프를 찾고 그 산문의 전개 방식과 수사법 등을 차용하면서도 자기 삶의 도학적 관점을 융화해 내어, '自足'이나 '求道'와 같이 자칫하면 진지하고 진부할 수 있는 주제를 다소 가볍게 느껴지는 희작으로서 표현하여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擬人體 산문의 다채로운 운용 역시 그 산문에서 꼽을 수 있는 특징이다. 각각 배, 매화를 의인화한 假傳과 마음을 의인화한 檄文으로 그 문체에 따라 전혀 다른 글쓰기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같은 가전 작품에서도 구조와 편폭을 달리함으로써 각기 다른 창작 의도와 특색을 나타냈다. 게다가 격문을 통해 마음을 의인화하는 천군계 작품의 모티프를 새로운 문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상 본고에서 다룬 산문 작품들은 김만영의 문장가적 면모를 대변하는 동시에 대부분 세상과 동떨어져 자연 속에서 살고자 했던 그의 도학가적 지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작품의 주제 의식은 결국 도학가의 성격에 가까울지 모르나 그 주제를 표현한 데에는 그의 문장가적 기질이 작용한 것이다. 이같이 보편적인 주제의 독특한 표현은 분명 김만영 산문의 문학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南圃, 金萬英, 散文, 自己敍事, 韓愈, 戱作, 擬作, 擬人體, 假傳, 天君.

1. 들어가며

17세기 전라도 나주에서 활동한 학자 南圃 金萬英(1624-1671)의 존재는 그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中庸』에 대한 그의 해석을 밝힌 연구가 유일하게 있을 뿐이다.[1] 그런데 최근 한국호남학진흥원에서 그의 문집인 『南圃集』을 완역·출간하면서 김만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남포집』 완역의 성과에 힘입어 그의 산문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김만영은 17세기 도학적 성향을 가진 재야 학자로 居敬窮理를 바탕으로 하는 경학자·성리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1) 최석기, 「南圃 金萬英의 『中庸』 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313-346면.

않은 인물이다.[2] 그의 문집을 일별해 보면 그러한 道學家的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시의 다수가 학자로서의 다짐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거니와, 대표적으로『남포집』권11의 '經義說'에 수록된 작품들이 理氣나 人心道心에 대한 논의,『중용』에 대한 해석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그의 문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도학가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선 시대의 문인 학자를 道學家, 文章家, 經世家로 구분하더라도, 어느 인물이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다만 특정한 모습에 보다 강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3] 그런데 김만영의 경우는 도학가의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문장가로서의 면모와 경세가로서의 모습 역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사실 그는 과거 시험에 몰두하지 않고 벼슬에 제수되어도 사양한 채 나아가지 않았다. 재야에 있으며 학문을 업으로 삼고 자연을 벗 삼아 평생을 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에 대한 관심을 끊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조정의 동태를 주시하였고 국가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호남의 民政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조정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의 문집에 남아 있는「萬言疏」가 그 증거이다. 게다가 그는「經世通典」이라는 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의 경세가적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4]

그의 문장가적 면모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그는 고향에 살며 처소 주변에 있는 아홉 개의 언덕을 '九皐'라고 하고 자신을 '九皐散翁', '九皐主人'이라고 칭하였다. 그 외에도 '南圃病逸', '南郊老圃'라는 자호를 쓰기도 하였다.

---

2) 최석기, 위의 논문, 317면.

3) 윤재민은 '道'와 '文'의 관계를 살펴 조선시대 문인 학자들의 문학관을 '경세가', '도학가', '고문가'의 계열로 나눠 살펴본 바 있다. 윤재민,「조선시대 문인학자들의 문학관」,『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177-207면.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참고하되 '도'와의 관계에서 '문'에 대한 가치를 보다 인정했던 점을 미루어 '고문가' 대신 '문장가'라고 칭하기로 한다.

4) 본고에서는 김만영의 문장가적 모습을 밝히고자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萬言疏」,「經世通典」등은 호남의 재야 학자로서 김만영이 가졌던 경세가적 면모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그는 재야의 인물로 자처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自己敍事라는 글의 형태로 남겼다. 나아가 김만영은 산문의 전범으로 인식되었던 韓愈의 작품을 차용하여 戱作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假傳을 포함한 擬人體 산문을 다양하게 창작하였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로 인해 '典重하고 華贍하여 歐蘇의 화려한 풍취가 있다',[5] '유연히 자득하고 만물과 화락하여 沂水와 舞雩의 기상이 있다'[6]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김만영이 이룬 문학적 성취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만영의 문학적 성취를 조명하고자 상기한 세 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산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학가로만 알려졌던 김만영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道學家의 삶과 지향[7]

김만영은 棠岳金氏 가문으로, 당악은 현재 전라도 海南郡 縣山面에 속하는 지명이다. 그의 선대에 대한 기록은 정유재란 때 불타 전하지 않고, 부총관을 지낸 그의 8대조 金忍의 묘소가 나주에 있어서 후손들이 그곳에 세거하였다고 한다. 이후 6대조 金琮은 문과에 급제하여 正言을 지냈으며, 5대조 金孝禎은 진사시와 생원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고조 金卧는 진사로 기묘사화 때 趙光祖(1482-1519)의 원통함을 변론하였다. 증조 金台角은 內資寺主簿를 지냈고 조부 金元祿은 朴淳(1523-1589)에게 수학하였는데 과거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부친 金泰洽은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광해군 당시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한 번도 覆試에 나가지 못하고 생도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이처럼 김만영의 가문은 현달하였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나주 일대를

5) 『南圃集』 卷首, 「南圃先生集新刊跋」, "其文典重華贍, 有歐蘇巨麗之風."
6) 『南圃集』 卷首, 「南圃先生集後序」, "故發之詩文者, 皆悠然自得, 與物熙熙, 有沂水舞雩之氣像."
7) 김만영의 생애는 『南圃集』 附錄 卷1에 수록된 「家狀」, 「行狀」, 「墓誌銘」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정리한 바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논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기로 하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그 삶의 지향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중심으로 한 지방 사족으로서 그 영향력을 일정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가문에서 김만영은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유년기 때 사서삼경과 제자서, 역사서 등을 두루 섭렵하였다.

그러다 15세(1638, 인조16) 때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부친이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김만영은 모친의 명을 받들어 역병을 피해 다른 곳에 우거하였다. 이로 인해 거상의 예를 다 하지 못한 그는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농사를 업으로 삼아 자신의 당을 明農堂이라고 하고 자신을 南圃病逸이라고 하였다.

이후 26세(1649, 인조27) 때 鄕薦으로 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같은 해에 趙絅(1586-1669)의 추천으로 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였다.

27세(1650, 효종1) 때에는 어사로 전라도에 온 閔鼎重(1628-1692)의 인정을 받았고, 31세(1654, 효종5) 때 모친상을 당하였다.

33세(1656, 효종7)에 상을 마치고는 벼슬에 더욱 뜻을 두지 않고 南平의 石面村에 우거하여 산수를 즐기며 사우들과 강학하였다.

36세(1659, 효종10) 때 효종이 승하하자 한양으로 가서 분곡의 예를 행하고 돌아왔다. 이로 인해 司勇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38세(1661, 현종2)에 南九萬(1629-1711)의 천거로 敎官에 제수되었으나 이때에도 사양하였다.

42세(1665, 현종5) 때에는 가족을 데리고 나주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을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이때 그가 나주로 돌아간 것은 당시 당쟁으로 인한 화를 피하고자 해서였다.

사실 그는 정계에서 활동하지 않았기에 특정 당파에 귀속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宋史』를 읽고 송나라의 멸망 원인으로 원풍 연간의 당쟁을 꼽았으며[8] 송나라의 당쟁이 오늘날과 같다고 탄식했던바,[9] 그는 당쟁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그런데 1차 예송논쟁이 있었던 때, 남인의 영수 許穆(1595-1682)과 서인의 영수 宋時烈(1607-1689)의 의견 중 허목의 의견이 옳다고 보았으며, 黃山書院을 창건할 때에 여산에 있던 송시열을 만나러 가라는 주변의

8) 金萬英, 『南圃集』 卷6, 「讀宋史熙豐元祐紀」, "君不見靖康大禍黨爨啓, 推原罪在於元豐."
9) 金萬英, 『南圃集』 卷5, 「南郊日記 下」, "閑閱宋史 … 寓目不堪胪欷, 見之若今日事."

권유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적으로 볼 때 김만영은 남인과 서인이 대립하던 당시 서인, 특히 훗날 노론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을 멀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문집에서는 尹拯(1629-1714)이나 남구만 등 소론계 혹은 남인계 인물에게 인정받았던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김만영은 소론 혹은 남인과 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면 때문인지 1665년에 남평현감으로 온 송시열의 아우 宋時杰은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고을 사람 일부가 송시걸에게 부탁하여 그를 해치고자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나주로 옮겨 간 김만영은 계속 자연 속에서 학문을 일삼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힘을 쏟다가 그의 나이 48세(1671, 현종12) 때 병으로 세상을 마쳤다.

이처럼 김만영은 현달하지 않은 가문에서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였고, 여러 번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한 채 나아가지 않았다. 평생을 해남과 나주 일대에서 재야의 학자로서 살아갔던 그는 몸소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九皐散翁', '九皐主人', '南圃病逸', '南郊老圃' 등으로 불렀다. 이러한 자호에서도 그의 삶과 지향을 읽을 수 있는데, 김만영은 '夢軒'이라는 자호를 짓고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꿈속에는 좋은 일이 그리도 많더니	夢中多好事
인간 세상엔 고달픈 일만 가득하네	人世足辛酸
차라리 높은 베개에 기대어	不若倚高枕
쓰러지듯 대죽 난간에 눕는 것이 낫겠네[10]	頹然臥竹欄

이 시에서 김만영은 꿈속과 대비되는 인간 세상은 고달프기에 대죽 난간에 눕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여기서 대죽 난간은 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현실과는 분리된 공간이다. 그리고 그 대죽 난간이 있는 곳이

10) 金萬英, 『南圃集』 卷1, 「自號夢軒」. 이하 『南圃集』에 대한 번역은 다음 책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부 윤문하였음을 밝힌다. 『남포집』 1·2, 한국호남학진흥원, 2020.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출판되어 한국호남학진흥원 홈페이지(https://hiks.or.kr/Translations)에서 볼 수 있다.

바로 '夢軒'이다. 『남포집』 내 관련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몽헌'은 꿈을 통해 인간 세상과 격리될 수 있다는 뜻에서 김만영이 자신의 당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자호로 삼은 것은 세속과 단절하고 싶은 그의 지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담소하는 사이에 종적을 감추고 거두니	藏踪斂跡笑談間
본성을 기르고 정신을 수양하여 절로 한가롭네	養性頤神自在閒
근심과 즐거움 더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憂樂更無關世慮
백년토록 환한 얼굴로 지낼 수 있을 것이네[11]	百年歸宿好容顔

「自述」이라는 시의 두 번째 수로, 남평에서 나주로 거처를 옮겼을 때 지은 것이다.[12] 전술하였듯이, 이때 김만영은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있어 그 화를 피하고자 거처를 옮겼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종적을 감춘 뒤 수양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며,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아 환한 얼굴[好容顔]로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이 환한 얼굴은 陶淵明의 시에서 유래한 말로, 가난하지만 거기에 구애되지 않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다.[13] 여기서 거처를 옮긴 것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오히려 안빈낙도하려는 그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세속과 떨어져 만족하며 지내고자 했던 김만영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 신세이지만 산새에게 함께 노닐며 한가히 지내자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고,[14] 아래와 같은 辭를 남기기도 하였다.

은자여 어찌도 그리	夫何一幽人兮
우활함과 졸렬함으로 서로 도모하는가	迂與拙而相謀
천지를 보기를 한 몸같이 하고	視天地爲一體兮
만물을 가리켜 다 똑같다고 하네	指萬物而同塗
평생 두 발은 명예를 다투는 곳이라면 들어가지 않았고	平生二跡兮不入爭名之場

11) 金萬英, 『南圃集』 卷4, 「自述」 其二.
12) 이 시의 제목에 소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時自永平移居錦濱"
13) 陶潛, 『陶淵明集』 권4, 「擬古」, "東方有一士, 被服常不完.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 辛苦無此比, 常有好容顔."
14) 金萬英, 『南圃集』 卷3, 「語山鳥」, "我本小言語, 我本無耆好. 踈拙似山僧, 淡泊如野老. 世皆謂我愚, 棄之如泥土. 山鳥爾何故, 與我從之遊. 天地廣而大, 與爾終悠悠."

평생 한마디 말이라도 파당 짓는 고을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平生一言兮不及黨比之鄕
하물며 이 한 마음의 기미가	況此一心之機兮
혹 얼음과 숯의 영역으로 나뉘겠는가	或分冰炭之壇
오직 두어 칸의 초가집	惟數楹之茅屋兮
왼쪽에는 푸른 물이 오른쪽에는 푸른 산이 있고	左綠水而右靑山
그 안에서 두어 번 경서를 열람하며	中開數秩經書兮
고인의 마음과 모습을 상상하네[15]	想古人之心顔

「一幽人辭」라는 작품의 일부이다. 은자[幽人]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천지와 혼연일체를 이루며 명예를 다투는 科場이나 당파를 짓는 조정은 발을 들이지도 입에 올리지도 않는 자로, 그야말로 우활하고[迂] 졸렬하여[拙] 세상일에는 어두운 인물이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일로 기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저 자연 속 작은 초가집에서 경서를 읽는다.

여기서 은자라고 지칭되는 인물의 모습은 앞서 인용한 시들에서 볼 수 있는 김만영의 모습과 같다. 말하자면 위 작품은 김만영이 은자에 가탁하여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서 학문을 일삼는 은자는 바로 도학가의 삶과 지향을 보여 주는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김만영은 현달하지 못한 가문에서 자라났고 벼슬을 모두 사양한 채 재야에 묻혀 살기를 자처하였다. 이러한 생애는 그의 문학 작품 곳곳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의 문학 전반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세상과는 동떨어져 자연 속에서 도덕과 인성을 함양하며 학문을 하는 도학가의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점은 아니지만, 이것이 그의 특색 있는 산문 일부를 낳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점이 어떻게 산문에서 나타나는지 이어지는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5) 金萬英, 『南圃集』 卷7, 「一幽人辭」.

3. 산문의 제 면모

1) 自己敍事를 통한 野夫로서의 정체성 표명

상기한대로 김만영은 재야에서 도학가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실천하였던바, 이는 당연히 그의 문학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실제로 그의 문집인『남포집』에는 도학가다운 문학 작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성격이 그의 문학 세계 전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조선의 문인학자라면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김만영의 문장가적 특색을 보여 주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의 성향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구현되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눈에 띄는 작품은「經鋤問對」로, 그 시작은 아래와 같다.

> 經鉏野夫는 세상의 일에 대해 알고 힘쓰는 것이 없어 손으로 호미 들고 김매고 농사지어서 어버이 모시는 계책으로 삼고 있다. 날마다 2, 3명의 일꾼을 데리고 동쪽 언덕 아래에서 농사일하느라 체력이 다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호미를 놓고 언덕에 올라가 즐겁게 옛 경서를 읽는다. 객이 방문하여 길게 읍하고 말하기를 "巫醫·樂師·梓匠·輪輿는 천한 기술이지만 본디 밭 갈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옛 경서를 다스리는 것 또한 밭 갈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野夫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伊尹의 쟁기와 도연명의 호미를 객은 또한 들어보았는가?"라고 하니, "들어봤습니다."라고 하였다.
>
> 野夫가 말하기를 "士君子가 마음을 세움에 마땅히 伊尹을 뜻 삼아 窮하여도 또한 행하며 達하여도 또한 행해야 할 것이다. 혹시 끝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도연명이 지킨 절개를 지키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6]

이 작품은 위 인용문의 문답으로 시작하여 총 7번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17] 編者가 남긴 주석에 따르면, 이 작품은 김만영이 모친상을 당한

16) 金萬英,『南圃集』卷11,「經鋤問對」,"經鉏野夫, 於世上事, 無所識務, 手執鉏耰役, 以爲供親計. 一日携園丁二三, 從事於東皐之下, 力倦神疲, 舍鉏登隴, 快讀古經. 有客來過, 長揖而問曰, 巫醫樂師梓匠輪輿, 工之賤者也, 固不可耕且爲也. 况治繹古經, 亦可耕且爲歟? 野夫笑曰, 莘摯之耒, 元亮之鉏, 客亦聞之歟? 曰, 聞之矣. 曰, 士君子立心, 當以尹爲志, 窮亦可行, 達亦可行矣. 倘終不遇, 以陶之所守爲守可也."

1654년 전후에 지어진 것인데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道統과 관련된 이야기가 누락된 미완의 형태이다.[18] 이를 감안하면 본 작품은 학문과 도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인용문과 같이 김만영이 野夫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여기서 등장인물인 經鉏野夫는 경서를 읽고 농사도 짓는 시골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로 김만영이 자신을 가탁한 인물이다. 그 인물이 세상의 일에 무지하고 무력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한 삶을 살고자 했던 김만영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게다가 객과의 첫 문답 내용이 농사와 학문의 병행 가능성이라는 점도 김만영이 놓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김만영은 농사를 짓고 학문을 병행하는 자기 삶을 남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만영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을 만큼[19] 野夫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도의 실천과 절의의 관계를 서술하는 다음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 비록 나라를 위해서 죽더라도 그 도를 선하게 하지 못하면 절의가 아니다. 비록 몸이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없는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時事가 어떠한가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반드시 도를 행하는 것으로 뜻 삼고, 반드시 절의를 세우는 것을 뜻 삼고도 도의 善, 不善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대본이 이미 잘못된 것이니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子思는 '나라에 도가 행해질 때는 자기 뜻을 표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겠지만,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침묵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미 명철하게 그의 몸을 보존하였으니 士君子의 도와 덕을 품은 자가 어찌 이 말을 종신의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20]

---

17) 7번의 문답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농사와 학문의 병행 가능성, ②농사의 즐거움, ③성인의 도를 배우는 방법, ④致知와 力行의 실천 방도, ⑤학문과 절의에 대한 인식, ⑥도의 실천과 절의 성립 관계, ⑦후대의 도의 전승.

18) 작품의 말미에 다음의 소주가 부기되어 있다. 金萬英, 『南圃集』 卷11, 「經鋤問對」, "謹按此篇之作, 當在甲午年間, 或以丁內艱而未畢耶? 此下想必係之以東方, 抑先生深意有所待而遲回耶? 恨不就質於當日函丈也."

19) 대표적으로 상소문에서도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金萬英, 『南圃集』 卷8, 「萬言疏」, "臣猥以微賤, 受恩兩朝, 雖懷感激, 糜粉難報, 自揣非才, 退耕田野, 今過十年."

20) 金萬英, 『南圃集』 卷11, 「經鋤問對」, "雖死於國, 不能善其道, 則非節義也. 雖身抱道德, 不行於無道之世,

인용문에 앞서 객이 "세상의 군자는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고 생각하여 도를 행하지 않으면 절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합니까?"라고 물었다.[21] 인용문은 그 물음에 대한 야부의 대답 일부이다.

여기서 김만영은 객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도가 아님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용』의 구절을 인용하여,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자신을 보전하는 것도 하나의 도임을 밝힌다. 이는 유가의 보편적인 출처론과 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러한 것을 밝힌 이유는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출사하지 않고 야부로서 살아가는 자신 삶을 변론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을 보면 「경서문대」라는 작품은 '求道'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만, 세상을 등지고 은거한 채 농사와 학문에 종사했던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의도는 곧 야부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한 대목으로 이해된다.

주지하듯이 출사를 거부한 문인학자들은 으레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곤 하였다. 「경서야대」는 자신의 정체성이 스스로 가탁한 인물과 객 간의 문답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것들과 차별된다. 한편 김만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閒居誌」라는 작품을 통해 야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이 작품은 보편적인 자기서사의 제목과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완전한 자기서사의 형태를 띤다.[22]

【1】 시골 노인이 평소에 기질이 졸렬하고 어그러져 인간 세상에서 부양할 수 없었다. 나이 40에 비로소 들판의 남쪽에 집을 지어 '南郊'라고 하고, 반무의 채소밭을 일구어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서 또 '老圃'라고 불렀다. 집 주변에 언덕이 있는데

亦可見矣. 不度時事之如何, 而必以行道爲志, 必以立節爲意, 而不顧是道之善不善, 其大本旣誤矣, 何足論歟? 子思曰, 邦有道, 其言足以興, 邦無道, 其默足以容, 旣明且哲, 以保其身, 士君子抱道懷德者, 盍以此言爲終身戒哉?"

21) 金萬英, 『南圃集』 卷11, 「經鋤問對」, "客曰世之君子, 有以行道爲節義, 不能行道, 爲非節義, 誠然耶?"

22) 自己敍事는 '저자가 자신의 삶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아의 사유와 감정 및 삶의 지향을 서술하거나, 자신의 변모 양상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 외부 환경 및 사건을 서술한 서사체'이다. 이러한 자기서사는 대개 제목에 자신이나 자신이 가탁하는 인물의 호칭을 담고 있다. 자기서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안득용, 『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21-22면.

모두 9개여서 혹자는 '九皐主人'이라고 불렀고, 집 뒤에 푸른 소나무를 손수 심어 놓고 그 집을 '晩翠'라고 전각하였다. 작은 채는 직각으로 네모지고 겨우 무릎을 허용하였는데 그 벽에 '直齋'라고 써 놓았고, 이웃 학생이 두 개의 언덕에 서실을 지어놓고는 '養正', '悅樂'이라고 하였다. 거처하는 곳에는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강이 없어서 바탕이 소박하기가 마치 그 사람과 같다고 하여 혹 '野翁'이라고 칭하였다.

【2】 야옹은 일찍이 책보기를 좋아했는데 병치레가 잦아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없어서 서가에 수백 권을 꽂아두고 때때로 열람하여 단지 우리 마음의 氣에 물을 대줄 뿐이었다. 나머지는 심사숙고의 뜻을 붙이지 않았는데 天然의 뜻에 병통이라고 여겼으니 대개 성품이 그러하였다. 性品을 기르는 방법을 대충 깨닫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가 거칠어서 精進할 수 없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때때로 혹 참여하여 들었지만 나태하고 둔하여 실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행동이 온통 어둡고 졸렬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고 단점으로 여겨도 껄껄 웃고 말 뿐이었으니, 그의 뜻이 너그럽고 느긋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책상 정리를 하고는 묵연하게 靜坐하여 마치 의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실제는 얻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침잠하여 시를 읊어 氣를 펼치고 宇宙를 살펴보고는 운행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금을 통달하였어도 그 귀착점은 즐기는 것에 참여함이 없었다.

【3】 봄에 채소가 채원에 가득하고 가을 곡식이 밭에 가득함에 이르러서는 혹은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을 신고, 혹은 작은 아이와 파리한 말을 타고 풀잎에 이슬 맺힌 들녘 사이를 다니며 시를 읊으니 그의 즐거움은 農圃에 있는 것 같았다. 온화한 바람이 꽃을 재촉하고, 드러난 하늘에 달이 흘러가면 가야금 한 번 타고 술 한 잔 마셨는데 스스로 술을 따르고 스스로 가야금을 켜고 좌우에 冠童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어서 그의 환락을 도우니 그의 즐거움은 가야금과 술에 있는 것 같았으며, 혹은 맑은 강에 달이 뜨면 비록 멀더라도 반드시 가서 巖壑에서 느긋하게 소요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으니, 아마도 산수를 즐기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의 즐거움은 저절로 그에 맞는 즐거움이 있으니 반드시 자세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4】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항상 그의 입으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늘이요, 지극히 넓은 것은 땅이지만 一元의 뒤에는 다 매몰되고 사라져서 그 자취 또한 쓸어버린 것처럼 될 것이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작기가 한 덩어리의 고깃덩어리와 같아서 100년을 살지 못하고 흙과 함께 썩을 테니, 어찌 스스로 있다 없다 할 것이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나에게는 또한 천지와 그 이치를 함께 하는 것이 있으니 밝고 밝은 마음의 사이에 붙어서 선을 기르고 확충해 간다면 천지만큼 높고 큼을 채워서 일원과 더불어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

였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저 뜬구름 같은 세상의 근심이나 기쁨, 우연히 찾아오는 비방이나 명예가 어찌 그의 즐거움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즐거움은 백 년의 한가로운 마음을 맡길 수 있을 것이고, 뒤에서 언급한 마음의 즐거움은 천지의 묘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모아서 정리하여 「閒居誌」에 쓰지 않겠는가.

을사년(1665, 현종6) 3월 10일 九皐主人이 쓴다.[23]

작품의 전문이다. '野翁'이라는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옹은 당연히 김만영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외 작품에서 언급되는 '郊老', '老圃', '九皐主人' 역시 야부와 같은 호칭이다.

작품은 크게 4단락으로 나뉜다. 먼저 1단락은 '野翁'의 존재와 그가 사는 처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야옹'이라 불리는 이유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2단락에서는 너그럽고 느슨한 心志 덕에 단점이 있어도 만족하는 야옹의 모습을 형용한다. 3단락은 한가롭게 지내며 누리는 야옹의 즐거움을 말하며, 4단락은 야옹이 견지한 세계관을 서술한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陶淵明의 「五柳先生傳」을 연상케 한다. 「오류선생전」은 ①입전 인물 간단한 소개 및 그 호가 생겨난 이유, ②학문 태도, ③술에 대한 기호, ④입전 인물에 대한 贊이 순차적으로 서술된다. 여기서의 '贊'은, 대상 인물에 대한 총평의 성격을 보이는 「閒居誌」의 4단락과 내용상의

---

23) 金萬英, 『南圃集』 卷11, 「閒居誌」, "郊老平日, 性質拙訥, 不能俯仰於人間世. 其年四十, 始築室于郊之南, 仍號南郊, 半畝蔬園, 自足爲生, 又號老圃. 宅邊有皐凡九墩, 或稱九皐主人, 屋後手種蒼松, 篆其軒曰晩翠. 小室直而方, 僅取容膝, 題其壁曰直齋. 隣生葺書室于二皐, 曰養正曰悅樂. 所居無名山佳水, 質素如其人, 或稱曰野翁. 翁嘗好看書, 多病未能劇讀, 架有冊數百卷, 有時披閱, 只取有灌溉吾心氣而已. 餘不着意苦思, 以病其天然之志, 盖性然也. 養性之方, 非不粗覺而氣痾不能精進, 治心之法, 時或預聞而懦鈍不能力行. 是以行之多暗劣, 人皆非短之, 亦囂囂焉, 盖其志寬緩故也. 嘗淨掃庭室, 几案斯整, 默然靜坐, 若有所思, 而其實無味乎所得矣. 沉吟叙氣, 傀仰宇宙, 繹思運意, 通達古今, 而其歸無預於所樂矣. 至於春蔬滿圃, 秋穀盈疇, 或竹杖草屨, 或短童羸馬, 行吟於野田草露之間, 則其樂似在於農圃矣. 和風促花, 露天流月, 一琴一樽, 自酌自彈, 而左右冠童, 咏歌吟詩, 以助其歡, 則其樂似在於琴酒矣. 而或泛月清江, 雖遠必臻, 優遊巖壑, 不憚其勞, 則無乃樂於山水者耶. 其人之樂, 自有其樂, 不必深辨, 其心常語其口曰, 至高者天, 至大者地, 而一元之後, 澌盡泯滅, 其迹如掃, 況吾人眇然一塊肉, 未及百年, 與塵土同朽者, 何足自以爲有無哉? 雖然, 在我者, 亦有與天地同其理者, 昭昭然寄寓於方寸之間, 善養而擴充之, 則可以塞天地之高大而與一元同終始矣. 思慮之至此, 則彼浮世之憂樂, 倘來之毁譽, 豈足以動其樂哉? 然則前所稱數者之樂, 足以寄百年之閒情矣, 後所稱方寸之樂, 可以達天地之妙用矣. 合而收之, 書用誌哉. 乙巳暮春上浣, 九皐主人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한거지」는 「오류선생전」과 유사한 전개와 내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단락에서 野翁이 누리는 즐거움을 서술한 부분은 「오류선생전」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동시에 자신의 기호를 피력함으로써 남과 다른 자신을 규정한다. 이로써 야옹은 '세상에 부앙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부앙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農圃, 琴酒, 山水가 주는 즐거움은 그것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 자신의 천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4단락 역시 「오류선생전」의 贊 부분과 흡사하면서도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아내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한다. 「오류선생전」에서 黔婁의 말을 인용하여 빈천과 부귀에 연연하지 않는 오류선생의 인물됨을 드러냈다면, 이 작품에서는 야옹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그 인물의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 세계의 시간적 개념을 버리고 우주 세계의 시간적 개념을 기준으로 인간 수명을 측정하여, 천지와 一元적 관점을 대입해서 삶의 지향을 밝힌 이 대목은 바로 『莊子』의 齊物論에 보이는 세계관과 일치한다.[24]

물론 이 작품은 자기서사 중 自傳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오류선생전」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25] 하지만 자아를 대상화하여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사유와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나, 구조와 전개의 측면에서 그것과 유사하다. 더구나 이 작품의 창작 시기가 당쟁의 화를 피하여 나주로 옮겨간 1665년이라는 점 역시 일반적인 자기서사의 창작 배경과 부합한다.[26] 이로써 본다면 「한거지」는 완전한 자기서사로서 손색이 없다 하겠다. 다시 말해, 「한거지」는 곧 김만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욕구의

24) 이에 해당하는 구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莊子』, 「齊物編」, "天下, 莫大於秋毫之末, 而大山爲小, 莫壽乎殤子, 而彭祖爲夭. 天地與我竝生, 而萬物與我爲一."

25) 예컨대 화자가 입전 인물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작가가 입전 인물이 아님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화자가 입전 인물을 제시하는 역설적 구조를 보인다. 이는 「오류선생전」 형 自傳에서 계승되는 수법 중 하나이다.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 / 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93-97면.

26) 자기서사를 주로 창작한 시기가 개인의 인생에 있어 시련기이거나 만년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기서사의 창작이 제고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안득용, 『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23면.

결과물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만영이 지녔던 문장가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만영은 '出'보다는 '處'의 삶을 지향하였다. 실제로 학문을 하는 학자이자 농사를 짓는 농부로 자처하였으며, 그러한 삶으로 인해 野夫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정체성은 그의 문장가적 기질과 맞물려 흥미로운 작품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가탁한 經鉏野夫라는 인물과 객 간의 가상 문답을 설정하여 세상과는 다른 자신의 삶과 지향을 일부 변론하였다. 나아가 완전한 자기서사의 형태로 단일한 작품을 남겨 자신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구현해 내었다. 이 지점에서 출사를 마다하고 은자의 삶을 추구했던 여타 문인학자와 다른, 김만영의 문장가적 기질과 그 산문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2) 韓愈의 문학을 차용한 戱作 창작

주지하다시피 韓愈의 문학은 전범으로 인식되었기에 고려・조선의 문인들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다. 특히 산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 그것을 차용한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고 그의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이 시도되었다. 물론 이는 李奎報・林椿・金昌協・安錫儆 등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27]

도학가의 성향이 강했던 김만영 또한 한유의 산문을 차용한 작품을 남겼는데, 이 역시 그의 문장가적 면모를 대변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작품은 「鞠蝨辭」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蝨]'를 심문하는 내용으로, ①褐寬先生에 대한 서술, ②'이'에 대한 갈관선생의 일갈, ③그에 대한 '이'의 반박, ④객의 첨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너는 천지에서	曰汝天地
가장 작은 생물로	爲物最微

27) 한유의 산문 수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상세하다.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한유 문장의 수용」, 『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5-64면.

구차하게 모발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假息毛髮
살갗에 기생하며	寄生膚肌
잠복하면서 알까지 기르는데	涵淹卵育
무리와 벗들까지 끌어들이는구나	引類連朋
내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마는	余何負汝
나의 고혈을 빼앗아가고	浚我膏血
게다가 나의 몸과 살갗은	況余體膚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이니	父母所遺
어찌 기꺼이 두려워하며	安肯忛忛
너에게 해를 당하겠느냐	爲汝所殃
…(중략)…	
너희들은 이러한 때에	爾於此時
더욱 그 독성이 왕성하여	益逞其毒
나의 손과 발로 하여금	使我手足
밤새도록 반복해서 긁게 하네	終夜反復
이것은 대강이니	此其梗槩
자세한 것은 다하기도 어렵도다[28]	難悉委曲

가난하지만 고금의 서책을 한가롭게 읽는 갈관선생이[29] '이[蝨]'로 인한 고충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죄상을 꼽아 말한다. 인용문은 그 처음과 끝을 발췌한 것으로, 첫 번째 죄상은 '이'가 자신에게 기생하는 미물이면서도 자신의 고혈을 빤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생략된 부분에서는 자신의 예모를 잃게 하는 점, 학문을 하는 데에 방해하는 점이 언급된다.

사실 이 작품은 소재만으로도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같은 소재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도 이채롭다. '이'를 소재로 한 산문의 경우는 대부분 논변류로서 '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설파하는 데[30] 반해 「鞠蝨辭」는 '이'의 인격화를 통해 가상을 연출하고 있는 데다 유희적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28) 金萬英, 『南圃集』 卷7, 「鞠蝨辭」.
29) 金萬英, 『南圃集』 卷7, 「鞠蝨辭」, "褐寬先生, 鶉懸兩衽. 草綻雙襟, 蓬門永日. 古今閑吟, 玄思默會."
30) '이'를 소재로 한 산문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상세하다. 조상우, 「이[蝨]를 소재로 한 고전산문의 전개양상 고찰」,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113-132면.

점은 戱作으로서 후대 큰 영향력을 끼친 韓愈의 「送窮文」과 흡사하다.[31] 실제로 이 작품은 설정과 전개에 있어서 「송궁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 비록 지극히 미천하지만	我雖至微
이 또한 천하의 생물이고	亦是天物
비록 그대에게 의지하여 살았지만	雖憑子生
또한 그대가 스스로 취한 것이네	亦子自取
내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니	我明語子
청컨대 그대는 살펴보아라	請子咨諏
…(중략)…	
지금 그대는 백 번 기운 겹겹의 옷과	今子百結重裳
십년 된 해진 갓으로	十年蔽冠
팽택령처럼 무릎이나 들어갈 만 한 집에 살고	容彭澤膝
사마광처럼 찢어진 이불을 덮는다	破司馬衾
광문처럼 가난하고	廣文雖貧
법조처럼 허리 크지만	法曹腰大
낙토여 낙토여	樂土樂土
이에 내 살 곳으로 얻었다	爰得我所
어찌 안을 돌아보지도 않고	胡不內顧
도리어 나와 원수가 되느냐[32]	反我爲讎

앞서 본 갈관선생의 일갈에 '이'가 내놓은 반박이다. 그에 따르면, 해진 옷을 입고 초라한 집에 사는 갈관선생의 가난한 환경 때문에 자신들이 기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자신이 번식하는 것은 갈관선생이 자초한 일인데도 자신을 탓한다는 '이'의 일침이다. 사실 궁벽한 곳에 사는 갈관선생에게 '이'가 번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당연한 일을 인격화된 '이'의 입을 통해 지적되는 위 장면은 戱作의 성격을 보인다. 게다가 작품은

31) 韓愈의 「送窮文」은 양웅의 「逐貧賦」를 모방하여 창작하였지만, 유희문학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모방한 작품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유의 「송궁문」에 대한 영향력은 다음 논문에 상세하다. 고광민, 「韓愈 〈送窮文〉의 후대 수용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09, 중국어문학연구회, 2018, 365-384면; 김미라, 「한국 문인들의 韓愈 「送窮文」 변용 창작 試論」, 『중국산문연구집간』 9, 한국중국산문학회, 2019, 69-94면.

32) 金萬英, 『南圃集』 卷7, 「鞠蠡辭」.

‘이’의 일침을 들은 객이 그에 동조하자 갈관선생이 다시 책을 읽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즉 이러한 전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곤궁함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 주는데, 이것이 곧 작품의 주제 의식이다. 물론 이 주제 의식이 농사를 짓고 학문을 일삼았던 야부 김만영의 삶이나 지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송궁문」과 유사한 형태의 외피 때문에 유희적으로 느껴진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김만영의 문장가적 면모를 다시 한 번 마주하게 된다. 산문의 전범인 한유의 「송궁문」을 차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문학 전범에 대한 인식과 학습, 문학의 유희적인 성격의 인지와 그것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슬사」는 자신을 곤궁하게 하는 존재의 의인화, 그 존재와 화자(갈관선생) 간의 대화체,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게 되는 전개와 결말, 안분지족이라는 주제 등이 「송궁문」과 같을 뿐만 아니라, 辭賦라는 문체 있어서도 유사한 면을 가진다.[33]

이러한 특성은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라는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孟郊가 한유의 鳴字序에 답한 편지를 대신하다’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맹교가 한유에게 답서를 보낸다는 가상의 설정으로 지어진 擬作이다.[34] 일단 이 작품 역시 다른 문인에게서 동일한 모티프의 작품을 찾기 어려울 만큼 희소한 특색을 지닌다. 더욱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닌, 개인의 습작 차원에서 창작된 작품인 만큼 「국슬사」와 마찬가지로 희작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김만영은 「送孟東野序」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맹교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이야기한다.

---

33) 「送窮文」은 辭賦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산구를 운용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 역대 문장 선집에서는 「송궁문」을 ‘잡저’類에 수록한 경우도 있지만, 청대 편선자들은 辭賦類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표적으로 姚鼐의 『古文辭類纂』과 曾國藩의 『經史百家雜鈔』에서는 모두 ‘詞賦’類에 수록하였다. 김미라, 「한국 문인들의 韓愈 「送窮文」 변용 창작 試論」, 『중국산문연구집간』 9, 한국중국산문학회, 2019, 74-76면.

34) 여기서 의작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역사적 인물이나 작품에서 소재나 주체를 취하여 창작된 작품으로서, 작자는 역사 속 등장했던 실존 인물의 입을 빌려서 서술하며 설정된 가상의 상황 아래에서 논의를 펼친다. 우지영, 「擬作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의작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341-342면.

【1】 천하의 사물은 다 우는데 울음에는 祥과 不祥이 있다.
【2】 역대로 새의 울음에도 瑞와 異가 있다.
【3】 한유가 말한 악기도 시대에 따라 善鳴者와 不善鳴者가 있다.
【4】 한유의 언급한 善鳴者 중에 老聃·莊周 등을 孔子·孟子와 함께 善鳴者로 볼 수는 없다.
【5】 唐나라만이 三代와 같이 울리고 있는데 周公 등의 울음에 비해 못한 점은 무엇인가?
【6】 나와 한유가 斯道를 크게 울리지 못해 슬피 울 수밖에 없으나 자신을 잘 울리게 할지 결정하는 하늘의 뜻은 내버려 두고 스스로 잘 울리기 위해 힘쓸 것이다.

작품의 단락별 요지이다. 우선 「송맹동야서」의 수신인인 맹교가 한유에게 답한다는 가상 설정도 흥미롭지만, 글의 논증 방식도 눈길을 끈다. 위의 요지만 보더라도 이 글은 「송맹동야서」의 논증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려져 있듯이 한유의 작품은 '不平則鳴'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그에 해당하는 자연·사물·사람의 예를 제시한 다음, 하늘이 고난을 통해 좋은 글을 쓰게 만든다며 불우한 맹교를 위로한다. 김만영 작품 역시 이 같은 전제 수립과 예시 제시를 통해 주제를 설파한다. 게다가 그 예시가 자연·사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점, 한유가 언급한 예거를 활용한다는 점, 鳴자를 중심으로 논지를 수립한다는 점 등도 「맹동야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유와 달리 김만영은 울음[鳴]을 祥과 不祥으로 구분하고, 善鳴者를 祥과 不善鳴者를 不祥(災)과 연결하며,[35] 한유가 노담·장주 등의 울음을 공자·맹자의 울음과 분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만영의 관점에서는 고요·기를 비롯하여 공자·맹자 등은 노담·장주와 달리 아랫자리에서 도를 가지고 울렸기 때문이다.[36] 이는 문학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善鳴者를 언급했던 한유와는 다른 관점이다. 김만영에게 善鳴者를 판단하는 준거는 儒家의 道였던 것이다.

35) 金萬英, 『南圃集』 卷9,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以天地之大, 其鳴也善鳴則爲祥, 不善鳴則爲災, 況乎其下者乎?"
36) 金萬英, 『南圃集』 卷9,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皐夔稷契周召孔顔思孟, 以道善鳴于下者也. 退之以一鳴字爲統而歷數聖賢之鳴, 以老莊荀楊之鳴, 渾于孔孟之鳴而無分別, 無乃擇焉不精之鳴歟?"

【6】 지금의 때를 당하여 고요・기・주공・소공의 울음으로 아랫자리에서 스스로를 기약하는 자는 그대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와 저는 진실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과 공자와 맹자가 우리에게 전한 것으로 이 세상에 크게 울리기를 잘하여, 당우와 삼대의 울음을 기대하는 우리 군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은 지금이 그 적당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울리기를 잘하는 그대도 고요・기・주공・소공처럼 斯道로 크게 울리지는 못하고, 동서로 쫓겨 다니며 아침에는 나물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을 먹으면서 항상 그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길을 나선 것도 도를 크게 울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그렇다면 제가 어찌 晝 땅을 나가면서 기뻐하지 않는 울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도 오히려 스스로 그 執政의 문에서 머리를 들고 슬피 우는 것을 면치 못하는 처지이니, 또한 어찌 저의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울리기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저에게 달려 있고, 제가 울리기를 잘하게 하느냐 잘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 애써가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힘쓰소서. 저는 再拜합니다.37)

작품의 마지막 단락이다. 그에 따르면, 신하로서 고요・기 등과 같이 善鳴者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신과 한유이고, 군주의 바람대로 당우・삼대와 같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인데, 둘 다 불우한 처지로 있으니 不平之鳴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善鳴'하게 할지는 하늘에 달려 있고, '善鳴'할 수 있을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노년에 溧陽縣尉로서 먼 지방을 가야하는 맹교에게 하늘이 부여한 운명에 상심하지 말라는 「송맹동야서」의 主旨와 다르지 않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善鳴者인 한유와 자신이 고요・기 등처럼 斯道로 크게 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은 정치적

37) 金萬英, 『南圃集』 卷9,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當今之時, 以皐夔周召之鳴自期于下者, 非退之與郊歟? 然則退之與郊, 固當以天之與我者及孔孟之傳我者, 大善鳴于斯世, 應吾君唐虞三代之鳴, 此非其時歟? 然以退之之善鳴, 不能大鳴以斯道若皐夔周召之鳴, 蹙蹙東西, 朝韲暮塩, 常鳴其不平之鳴, 而郊之此行, 亦非所以大鳴之道, 則郊安得無出晝不豫之鳴歟? 退之猶自不免其仰首哀鳴於執政之門, 亦安得解郊不平之鳴歟? 雖然, 吾之善鳴與不善鳴在吾, 使之善鳴與不善鳴在天, 在天者, 吾末如之何也, 在吾者, 吾何能不苦心以勖哉? 退之其勉之. 郊再拜."

궁달이고, 자신이 힘써야 할 바는 斯道임을 알 수 있다. '사도'의 구현을 통해서 善鳴者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따른 것인데, 한유의 작품에서 언급된 다른 분야를 통한 善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만영의 도학가적 모습을 보여 준다.

이처럼 김만영은 한유의 명문으로 알려진 「송맹동야서」를 읽고 그 글의 수신인인 맹교를 模擬하되 자신의 도학적 관점을 반영해서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따라서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는 김만영이 지녔던 도학가의 성향과 문학가의 기질이 합해져 탄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김만영은 한유의 산문에서 모티프를 찾고 그 산문의 전개 방식과 수사법 등을 차용하면서도 자기 삶의 지향이나 도학적 관점을 융화해 내어 자신만의 작품 구현에 성공하였다. 그래서 글의 주제와 내용은 다소 범범할지라도 그 모티프와 소재는 다른 문인에게서 발견하기 힘든 만큼 신선하고 참신하다. 또한 '自足'이나 '求道'와 같이 자칫하면 진지하고 진부할 수 있는 주제를 다소 가볍게 느껴지는 희작으로서 표현하여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김만영의 문장가적 면모이자, 특기할 만한 그 산문의 특징이다.

3) 擬人體 산문의 다채로운 글쓰기 운용

김만영은 2편의 傳을 남겼는데, 이 작품 모두 사물을 의인화한 假傳이다. 게다가 그 전에 이어 수록된 檄文 또한 의인화 수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이들은 의인화의 수법을 사용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글쓰기의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 김만영 산문의 또 다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公孫航傳」은 禹임금 때부터 南宋 멸망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배를 의인화한 작품이다. '序頭', '先系', '事蹟', '後系', '評結'의 전형적인 傳 체재를 갖추고 있다. 입전 인물 公孫航은 우임금이 九河를 소통시킬 때 공을 세운 후 周昭王이 楚澤에 빠져 익사할 때 함께 죽은 인물로 묘사된다. 이후 그의 아들 公孫艦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입전 인물에

대한 분량보다 많은 데다 뛰어난 서사성을 보인다.

> 항우가 卿子冠軍을 살해하고 군대를 거느려 황하에 도착하였다. 艦이 항우를 설득하며 말하기를 "장한을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趙高가 궁중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장한과 틈이 벌어졌으니 이는 안과 밖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저와 함께 황하로 떠가서 직접 함곡관에 이르러 패공과 합세하여 秦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를 제거하고 나면 장한은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항우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십만의 무리를 통솔하여 무도한 진나라를 공격하려는데 艦이 얄팍한 꾀로 나를 흔들어대고 병사들의 마음을 꺾는다."라고 하면서 艦을 황하에 빠뜨리고 그의 무리 수천 명도 모두 빠뜨렸다. 艦은 몰래 탈출하여 그의 무리와 함께 남쪽으로 長江과 漢水로 흘러가서 장차 유방과 합종하려 하였다.[38]

위의 배경은 秦나라 말엽 항우가 卿子冠軍 宋義를 죽이고 스스로 上將軍이 되어 진나라를 공격하던 즈음이다.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公孫艦은 鉅鹿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항우에게 진나라 장수 章邯과 환관 趙高가 틈이 있기 때문에 劉邦을 기다려 그와 함께 진나라를 치는 것이 좋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항우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공손함에게 화를 내며 그를 황하에 빠뜨린다.

이 장면은 바로 항우가 鉅鹿에서 진나라와 전투를 앞두고 결사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황하를 건넌 뒤 타고 온 배를 모두 가라앉혔던 고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39] 또한『史記』「項羽本紀」에 따르면, 실제 章邯은 진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던 趙高가 시샘하여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항우에게 항복하였는데, 다만 이는 거록에서의 전투가 있고 난 뒤의 일이었다. 즉 김만영은 항우가 배를 가라앉혔던 고사 및 진나라의 장한과 조고에게 틈이 있었던 역사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공손함이라는 가상 인물이 항우의 휘하에서 나와서 유방에게

---

38) 金萬英,『南圃集』卷13,「公孫航傳」,"項籍殺卿子冠軍, 以兵至河. 艦說羽曰, 邯不足擊也. 趙高用事于中, 與邯有隙, 是內外不相應也. 爲今之計, 不若與艦浮于河, 直抵函谷關, 與沛公合勢攻秦. 根本旣鋤則邯不足擊也. 羽怒曰, 我方率十萬之衆, 攻無道秦, 艦乃以淺謀撓我, 以沮士卒心, 乃沉艦于河, 其徒數千皆沉焉. 艦潛出, 與其徒南流江漢, 將與漢王合從."

39) 司馬遷,『史記』「項羽本紀」,"項羽乃悉引兵渡河, 皆沈船, 破釜甑, 燒廬舍, 持三日糧, 以示士卒必死, 無一還心."

편입되는 서사를 구축한 것이다. 인용문에 이어 공손함은 유방의 휘하에서 蕭何와 함께 수로를 통해 군량을 운반함으로써 한나라의 통일에 기여한 인물로 그려지는데,[40] 이로 볼 때 위 장면은 공손함이 한나라의 통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잘 위치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말하자면, 김만영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를 배경으로, 항우가 배를 가라앉혔던 고사를 채택해서 실제 역사의 전개 속에서 가상 인물인 공손함의 서사가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위 장면을 구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상 인물과 역사 인물의 대화를 설정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 인용문은 배와 관련한 고사를 활용한 서사의 확대가 가장 돋보이는 장면으로, 작품 중에서 백미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주목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 史官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인재를 쓸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있는 자가 잘 쓰면 천하에 어질지 않은 자가 없고 잘 쓰지 못하면 천하에 악하지 않은 자가 없다. 공손항은 한 몸이로되 우임금을 도와 공을 세우고 물과 땅을 평정하였으니 걸출하여 볼 만하였으나, 끝내는 걸왕과 음탕에 빠졌고 결국 楚澤에서 아교가 풀리어 죽었으니 어찌 그리도 잘못되었던가. 또한 출신을 가지고 인재를 써서는 안 된다. 항의 아들 刀는 淸高함이 비할 바가 없었고, 艦은 웅장한 지략이 매우 뛰어났으며, 方은 나루터 아전으로 늙어 남에게 부림을 받았다.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賢愚와 淸濁이 이렇게 현저히 다르다. 이 때문에 先王이 대대로 봉록은 주되 대대로 관직을 주지는 않았던 것이니 인재를 쓰는 자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刀의 후손으로 이름이 梓인 자와 가장 친한데 장차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가려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의 世系를 특히 자세하게 기술하는 바이다."[41]

---

40) 金萬英, 『南圃集』 卷13, 「公孫航傳」, "艦使裨將艘將數十萬衆, 從王下彭城. 艦自河入關, 與蕭何轉漕運糧, 終始不絶, 漢以此得天下."

41) 金萬英, 『南圃集』 卷13, 「公孫航傳」, "史斷曰, 用人材, 不可不愼也. 在上者, 能用之, 則天下莫不贊, 不能用之, 天下莫不惡. 航一體也, 佐禹立功, 平定水土, 傑然可觀也, 卒與桀沉淫, 竟死於楚澤之解弛, 何其累也? 亦不可以世類用人材也. 航之子刀淸高莫比, 艦壯略魁偉而方老津吏, 爲人所役, 一本之出而賢愚淸濁若此懸絶, 此先王之所以世祿而不世官者也. 用人材者, 可不愼歟? 余與刀之族裔名梓者, 最相親, 將有同載浮海之志, 故述其世傳獨加詳焉."

작품의 평결 부분인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이다. 첫째, 인재를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공손항이 우임금 때는 공을 세웠으나 걸왕 때에 그와 함께 하며 음탕함에 빠져서 결국 죽게 되었던 점을 든다. 둘째, 출신으로 인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공손항의 세 아들이 같은 아비에서 나왔으나 저마다 賢愚와 淸濁이 현저히 달랐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이 公孫刀의 후손인 桴와 친한 데다 뜻이 같아서 이 글을 짓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 마지막에 글을 짓게 된 동기를 표현한 부분은 김만영의 삶과 지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桴라는 공손도의 후손과 함께 '浮海之志'를 갖고 있다는 말은 『논어』에서 온 것으로[42] 은거에 대한 지향을 함의한다. 그런데 김만영은 '余'라는 자아를 등장시켜 그것과 결부함으로써 자신의 은거 지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내용 역시 그의 출처관과 관련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김만영이 이야기한 것은 군주의 입장에서 신하를 잘 가려 택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근거로 거론한 공손항의 사례는 신하가 주체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신하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군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신하는 천하에 나아가 공을 세울 수도 있고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는 김만영이 野夫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변론하기 위해 강조한 유가의 보편적 출처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작품 역시 김만영의 삶이나 지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내용은 위 맥락과 달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기서 김만영이 지적하는 것은 부모의 蔭德에 따라 관리로 채용하는 蔭敍制이다. 실제로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훈신과 척신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점차 문벌의식이 강화되면서 음직 자체가 고질화되었다.[43] 이로 인해 임진왜란 이후로 음서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표출되었다.[44] 김만영의 지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다. 게다가 일부 假傳에서 평결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42) 『論語』「公冶長」,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43) 박홍갑, 「朝鮮前期 蔭職硏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166-167면.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자세하다. 이국진, 「조선시대 문인들의 음서제에 대한 비판 인식 양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81, 한국한문학회, 2021, 9-54면.

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음서제와 관련하여 "인재를 쓰는 자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은 현실을 향한 경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公孫航傳」은 배와 관련된 역사 고사를 근간으로 하여 서사성과 생동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만영의 현실과 상황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완전한 가전 작품이다. 반면 또 다른 가전인 「梅先生傳」은 서사성, 생동감 등과는 거리가 멀다. 굉장히 소략하게 구성된 이 작품은 작중 화자인 '나[余]'와 梅先生이 교분을 맺게 된 인연을 밝히는 서두로 시작하여, 매선생에 대한 특징을 서술한 뒤 아래의 평결로 끝맺는다.

> 태사공은 말한다.
> "선생의 선조는 商나라 高宗朝에 元氣를 조화하는 임무에 쓰였다. 그 후세에는 높여 쓴 자가 없다가 宋나라 林逋가 벗으로 삼고 믿어 주었다. 그러나 한갓 그 幽閑한 아취만 섬겼을 뿐이요 大味를 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비록 그렇지만 임포의 뒤에는 그 유한한 아취마저도 아울러 버렸으니 슬프도다. 그렇다면 능히 선생을 벗으로 삼아 나와 함께 할 자는 몇이나 될 것인가."45)

동일한 매화를 소재로 한 가전은 尹致英(1803-1856)의 「梅生傳」이 거의 유일한데,46) 이 작품은 그보다 대략 2세기 앞서 창작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假傳史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매화의 꽃 외에 열매에도 착목한 점은 윤치영의 작품이나 꽃을 소재로 한 다른 가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부분이다.

위 평결에서 김만영은 殷나라 高宗朝에 매실이 調味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고, 이후 매화를 사랑했던 송나라의 은자 林逋도 매실의 맛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나아가 후대에는 매화의 雅趣를 제대로 아는 이조차도 사라졌음을

---

45) 金萬英, 『南圃集』 卷13, 「梅先生傳」, "太史公曰, 先生之先, 在商高宗朝, 見用於調和元氣之任, 其後世無尊而用之者. 及宋林和靖友而信之, 然徒事其幽閑之趣, 而及其調和大味則蔑乎無聞矣. 雖然, 和靖之後, 幷其幽閑之趣而棄之. 悲夫. 然則能友先生. 同余者幾人?"

46) 소재별 한국 가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김창룡, 『가전문학론』, 박이정, 2007. 이 책에서 다룬 가전이 한국 가전의 전체는 아니다. 실제로 본고에서 다루는 김만영의 가전 모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다만 이 책과 함께 『한국문집총간』을 검색한 결과 매화를 소재로 한 가전은 찾을 수 없었다. 이로 볼 때 매화 소재의 가전이 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적한다. 자신이 매화선생과 '세상을 초월한 교분을 맺었다[作世外交]'는 서두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 평결은 결국 자신만이 매화의 진면모를 제대로 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김만영에 의하면, 그 진면모는 꽃과 열매를 함께 볼 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위 작품에서 매선생의 특징을 크게 꽃과 열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이렇게 매선생은 꽃과 열매 둘 다를 갖추었다."[47]라고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위 평결에 이어 小注 형태로 幷序가 부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글의 창작 배경과 동기를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김만영은 꿈에서 上帝로부터 명을 받은 使者의 요청으로 인하여 「梅先生傳」을 짓다가 깬 후 실제로 그 글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48] 그 마지막에 꿈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바, 매화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이 정말 이 같은 꿈을 꾸게 한 것은 아닐까 싶다. 이러한 매화에 대한 기호는 「盆梅記」라는 글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김만영은 매화 자체만이 아니라 그 열매인 매실에 주목하여 그것을 伊尹과 太公에 견준다.[49] 이로써 본다면 매화와 매실에 대한 남다른 애호가, 소략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매화의 진정한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매생전」을 창작하게 한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살펴본 두 편의 가전 외에도 김만영은 「喩氣卒檄」이라는 의인체 산문을 남겼다. 이는 檄文이라는 문체로 인해 기본적으로 변려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對偶와 排比의 구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고사와 수사법이 활용된다. 그중 작품의 마지막 단락은 격문의 성패가 달려 있는 선동성이 고조되는 대목인데, 편의상 대우 또는 배비를 이루는 문장 단위로 끊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① 아, 나의 氣卒 군인 등은 구태를 혁파해 제거하고 새로운 명을 모두 따르라.

---

47) 金萬英, 『南圃集』 卷13, 「梅先生傳」, "此先生華實兩全者也."
48) 金萬英, 『南圃集』 卷13, 「梅先生傳」, "壬辰五月端午夜夢, 余遊於洌泉之邊, 有白衣使者揖余而言曰, 受命于上帝, 求文于足下. 余曰, 所謂文者, 甚文字歟? 答曰, 梅先生傳矣. 余診製而忽覺, 乃一夢也. 仍惙而乃作其傳, 幷書其事于下云. 盖記異也, 非敢誕也."
49) 金萬英, 『南圃集』 卷13, 「盆梅記」, "其實或和之大羹 , 五味具和, 則伊尹太公當之."

② 옛날에는 마음이 외물에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오늘엔 하늘에 통함을 각성하라.
③ 칼날을 맹렬히 갈아서 賊勢의 要路을 끊고, 門戶를 한결같이 지켜서 外客이 와서 엿보는 것을 막아라.
④ 神이 지키는 고을을 하여금 영원히 귀신이 엿보는 집이 되게 하지 말라.
⑤ 만약 나와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처벌을 명할 것이고, 너희가 혹시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天君의 기상을 와서 볼 것이다.
⑥ 이는 나의 충고이니 격문이 이르는 대로 글과 같이 시행하라.[50]

위 인용문은 마음을 동요시키는 외물의 위험성과 그 외물의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이 각각 서술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총 6번의 대우와 배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①, ②, ③, ④를 통해 氣卒에 대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⑤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믿지 않을 경우에 내릴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⑥에서 격문에 따라 시행하라는 최종의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전개는 강한 어조로 압박감을 자아내어 효유하는 격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내용의 전개과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의 모티프이다. 인용문에 보이듯이 이 작품은 마음을 의인화한 天君을 지키기 위해 志帥가 氣卒을 선동하는 설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심성 가전을 비롯한 천군계 작품과[51] 연접한다. 16세기 이후 천군계 작품은 『心經附註』에 대한 주석서의 출현과 심성론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자양분 삼아 창작되었는데, 이를 창작한 문인은 대부분 은자의 길을 택하여 지방에서 유학을 진작하고 심성론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이었고, 이들 중 李滉의 문인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52] 김만영 또한 은자로서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음은 물론, 거경·

50) 金萬英, 『南圃集』 卷13, 「喩氣卒檄」, "①咨我氣卒軍人等, 革去舊塵, 咸聽新命. ②悟昔時之物化, 覺今日之天通. ③勇礪劒鍰, 割賊勢之要路; 一守門戶, 防外客之來窺. ④毋使神守之鄕, 永作鬼瞰之室. ⑤若不從我約束, 必有天命誅譴; 爾倘不信我言, 來見天君氣象. ⑥是余忠告, 檄到如章."
51) 그간 마음을 의인화한 서사 문학은 그 문체에 따라 심성 가전, 천군(계) 소설, 천군 작품 등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본고에서는 마음의 의인화인 천군이 등장하는 서사 산문 가운데 마음의 수양과정을 주제로 한 작품군 전체를 포괄하는 '천군계 작품'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천군계 작품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통시적 고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강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 『한국학』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01-326면.
52) 강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 『한국학』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05-317면 참조.

궁리를 두 축으로 하는 퇴계학을 존신했던 인물이었다.[53] 이러한 점에서 김만영의 위 작품은 천군계 작품의 史的 맥락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격문이라는 문체로 인하여 서사성이 다소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격문이라는 새로운 문체에 천군계 작품의 모티프를 적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렇듯 김만영이 심성의 의인화라는 동일한 모티프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실험적 글쓰기를 시도한 것은 문장가로서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인체 산문의 다채로운 운용은 김만영 산문의 주요한 특질이다. 이 의인체 산문은 가전과 격문이라는 다른 문체로 쓰인 데다 동일한 가전도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김만영의 성향, 지향, 기호 등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들 작품은 심층에서 김만영의 도학가적 면모와 표층에서 그의 문장가적 기질을 보여 준다. 물론 이것이 김만영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이를 통해 도학가로서만 알려졌던 그의 문장가적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작품들이 문학사적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기반으로 김만영의 산문에 대한 특징을 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만영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南圃 金萬英은 그간 학계에서 도학가의 모습만 조명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김만영의 문학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우선 그의 산문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크게 다음 세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었다.

먼저, 김만영은 학문을 하는 학자이자 농사를 짓는 농부로 자처하였을 만큼 野夫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정체성을 표명하기 위해 자기서사라는 형식의 산문을 창작하였다. 이들 작품에서 자신이 가탁한 經鉏野夫라는 인물과 客 간의 가상 문답을 설정하여 세상과는 다른 자신의 삶과 지향을 일부 변론하는가 하면, 자전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陶淵明의

53) 최석기, 「南圃 金萬英의 『中庸』 해석과 그 의미」,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341면.

「五柳先生傳」과 유사한 구도와 전개로 野翁으로서의 즐거움과 莊子的 세계관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韓愈의 산문에서 모티프를 찾고 그 산문의 전개 방식과 수사법 등을 차용하면서도 자기 삶의 도학적 관점을 융화해 내어, '自足'이나 '求道'와 같이 자칫하면 진지하고 진부할 수 있는 주제를 다소 가볍게 느껴지는 희작으로서 표현하여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 내었다.

마지막으로 擬人體 산문의 다채로운 운용 역시 그 산문에서 꼽을 수 있는 특징이다. 각각 배, 매화를 의인화한 假傳과 마음을 의인화한 檄文으로 그 문체에 따라 전혀 다른 글쓰기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같은 가전 작품에서도 구조와 편폭을 달리함으로써 각기 다른 창작 의도와 특색을 나타냈다. 게다가 격문을 통해 마음을 의인화하는 천군계 작품의 모티프를 새로운 문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상 본고에서 다룬 산문 작품들은 김만영의 문장가적 면모를 대변하는 동시에 대부분 세상과 동떨어져 자연 속에서 살고자 했던 그의 도학가적 지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작품의 주제 의식은 결국 도학가의 성격에 가까울지 모르나 그 주제를 표현한 데에는 그의 문장가적 기질이 작용한 것이다. 이같이 보편적인 주제의 독특한 표현은 분명 김만영 산문의 문학적 성취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그 산문에서 파악되는 전범에 대한 인식, 그 전범을 차용한 작품 습작, 새로운 양식의 글쓰기 시도 등으로 시선을 옮겨 둘 때 그간 외면되었던 김만영의 문장가적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향후 이러한 김만영의 면모에 주목하여 그 문학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의 문학사적 위상이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論語』
『史記』
『莊子』
金萬英,『南圃集』,『한국문집총간』 속 36, 한국고전번역원.

김창룡,『가전문학론』, 박이정, 2007.
안득용,『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
윤재민,「조선시대 문인학자들의 문학관」,『조선시대, 삶과 생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0.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 심경호 옮김,『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金萬英 지음 / 손왕호 외 번역,『南圃集』 1・2, 한국호남학진흥원, 2020.

강혜규,「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한국학』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01-326면.
고광민,「韓愈 〈送窮文〉의 후대 수용 연구」,『중국어문학논집』 109, 중국어문학연구회, 2018, 365-384면.
김미라,「한국 문인들의 韓愈「送窮文」 변용 창작 試論」,『중국산문연구집간』 9, 한국중국산문학회, 2019, 69-94면.
박홍갑,「朝鮮前期 蔭職硏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심경호,「한국 한문산문의 발달과 한유 문장의 수용」,『어문논집』 50, 민족어문학회, 2004, 5-64면.
우지영,「擬作의 창작 동기와 창작 양상에 대한 一考—韓信 소재 의작 작품을 중심으로—」,『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341-363면.
이국진,「조선시대 문인들의 음서제에 대한 비판 인식 양상 연구」,『한국한문학연구』 81, 한국한문학회, 2021, 9-54면.
조상우,「이[蝨]를 소재로 한 고전산문의 전개양상 고찰」,『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113-132면.
최석기,「南圃 金萬英의『中庸』 해석과 그 의미」,『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313-346면.

【Abstract】

A Study on the Prose of Kim Man-yeoung (金萬英)

JUNG, Ha-Jung*

Nampo (南圃) Kim Man-yeoung (金萬英) has been spotlighted as a Neo-Confucianist in academia. In order to attempt to examine Kim Man-yeoung's literature beyo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s, this paper first focused on his prose.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were largely captured.

First of all, Kim Man-yeoung had an identity as a ruralist to such an extent that he claimed to be a scholar who studies and a farmer. To express this identity, he created a form of prose called 'Self-narrative'. In these works, he partially revealed for his life and goal different from the world by setting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virtual characters he had made. In addition, through composition and development similar to Tao Yuan-Ming (陶淵明)'s「Wuliuxiansheng-zhuan (五柳先生傳)」, the joy of being a ruralist and Zhuangzi (莊子)'s worldview were revealed.

He also found a motif in the prose of Han Yu, borrowed Han Yu's prose development methods and rhetoric, but fused his own philosophical perspective of life. He created a unique sense of aesthetics by expressing subjects that would otherwise be serious and banal, such as 'self-sufficiency (self-sufficiency)' or 'seek truth (求道)' as a rather light comedy.

Finally, the divers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Process prose is also a characteristic of the prose. They personified pear, plum, and heart, respectively, and showed completely different writing styles depending on the style.

The prose works examined in this paper represent the literary aspect of Kim Man-young. The theme consciousness of these works may eventually be close to the character of a Neo-Confucianist, but his literary temperament played a role in expressing the subject. This unique expression of a universal subject is clearl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KeiMyung Univ.

the literary achievement of Kim Man-yeoung's prose.

Keywords: Nampo (南圃), Kim Man-yeoun (金萬英), Prose, Self-narrative (自己敍事), Han Yu (韓愈), Light literature (戱作), Uijak (擬作), Personific Prose (擬人體), Gajeon (假傳), Chonkun (天君).

접수일: 2022.06.29.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17.